

격 려 사

오늘 우리 한국불교의 계율 연구를 중흥시키고 조계종의 계율과 수계제도의 바탕을 정립하신 ‘자운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종단적으로도 뜻깊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자운스님은 한국불교의 계율을 바로 세우신 어른이십니다. 계율이 바로 서니, 일제에 의해 땅에 떨어졌던 불가의 계율은 명실상부한 금강계단(金剛戒壇)으로 변화하였고, 그 회상에서 큰스님께 수계를 받은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스님으로 인해 생사고해를 건너는 배를 얻고, 어두운 무명을 밝히는 등불을 전해 받았습니다.

우리 종단의 제반 의례와 법식은 물론 의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틀을 모두 바로 세우시고, 계율정신에 입각한 참회정진 수행을 널리 유포하시니 스님에 의해 사부대중은 청정한 몸과 마음을 얻게 되었고 종단은 그 기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실로 스님께서는 한국불교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원력보살임이시며, 다겁생래 이어온 단단한 원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스님의 행로는 오직 용맹정진의 한 길이었습니다. ‘불교중흥을 위해 계율정신을 진작하라’는 부촉을 따르고 계율로써 법륜이 상전토록 하겠다는 큰 서원은 스님의 정진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매진은 한국불교의 계율을 바로 세우는 근간이라 할 것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 지는 가운데 제방의 선지식들과 한국불교의 중흥에 뜻을 함께 하시면서 성철, 청담, 우봉 큰스님 등과 함께 ‘오직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보자.’는 원을 세우고 봉암사에서 결사를 시작하니, 이 때 정한 공주규약 가운데 12가지가 계율과 관련한 사항이니 이 공주규약의 틀을 자운스님이 정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결사 중에 처음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여시는 한편 수많은 율전을 출간 배포하시면서 계율 흥포를 위해 매진하셨습니다. 또한 계율에 대한 강조 뿐 만 아

니라 계정 일치 수행을 제창하여 여러 경전의 한글본을 출간하여 유포하셨으며 출가
자나 재가자가 수행과 신행에 있어 자기성찰이 앞서야 한다고 설파하시면서 참회정진
수행을 권장하셨으니 스님의 이런 노력에 의해 한국불교의 율맥이 바로 서고 율장이
널리 흥포됨은 물론 수행과 신행의 모범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홀연히 열반에 드실 때까지 오직 염불과 참회, 지계수행으로 정진하시면서 스스로를
상참괴승(常慙愧僧)이라 낮추시며 일심으로 법답게 사신 큰스님의 일생은 오늘날 우
리 사부대중의 사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큰스님의 삶을 되돌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계청정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계율이 수행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 물음에 한 점이라도 부끄러
움이 있다면 스스로 참회하고 자신의 계행과 수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성과 쇄신이며 자운큰스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잇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가 자운큰스님의 큰 뜻을 이어 종단의 자성과 쇄신결사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7(2013)년 4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